봄 기운… 움트는 새싹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자연생태공원에서 초록의 도라지 새싹이 땅 속에서 움트고 있다. 강희만기자

2시간 가까이 공항 체류… 뒤늦게 확인한 道

제주 13번 확진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받지 않아
자택에 머물다 이튿날에야 확진… 도, 명단 누락 확인

코로나19 제주 13번째 확진자(10대·여·중국)가 입도 후 2시간 가까이 제주공항에 머물렀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주도의 명단 확인도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번 확진자 A양의 역학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당초 A양은 20대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대임이 확인됐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A양은 미국에서 출발해 지난 12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혼자 입국, 서울에서 하루를 묵었다. 이튿날 자택이 있는 제주로 이동하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오전 6시40분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해 1시간 후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에 도착한 뒤 A양은 1시간40분 동안(13일 오전 9시20분) 제주공항에 머물렀으며, 이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어 A양은 공항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오전 10시20분 자택에 도착했으며,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줄곧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해외 방문 이력자는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특별입도절차'에 대해 A양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구술했다.

현재 A양과 접촉한 인원은 6명으로, 입도 당시 탑승한 항공편(KE1201) 승무원 2명과 승객 3명 및 제주공항에서 탑승한 택시의 기사 1명 등이다.

하지만 제주에 도착한 뒤 2시간 가까이 공항에 머물렀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양은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옮겨졌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하다"라며 "특히 A양이 제주에 도착한 뒤 마스크와 장갑을 계속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 검사 명단과 정부 제공 명단을 교차 점검하는 과정에서 A양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A양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다음날일 14일에야 연락이 이뤄져 검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차 온라인 개학… 초등학생도 원격수업 시작

중·고 3에 이어 중·고 1~2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진행
도내 초등학교에선 교육과정
저학년·고학년 구분해 편성

제주지역 초·중·고교가 오늘(16일) 2차 온라인 개학에 들어간다. 초등학교에선 첫 온라인 개학을 맞는 만큼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의 원격 수업 적응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16일 온라인 개학한다. 지난 9일 중·고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오는 20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하면 도내 초중고 모든 학생이 등교 없이 수업을 시작한다.

초등학교에선 저학년·고학년을 구분해 첫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저학년은 EBS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과제학습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고학년에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등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과 e-학습터, EBS 클래스를 통한 콘텐츠 활용 수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격 수업의 학습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 꾸러미'도 제공된다. 각 가정에 전달되는 꾸러미에는 한글 따라 쓰기, 숫자 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학습 자료가 담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학습만 하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이와 병행할 수 있는 학습 꾸러미를 각 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긴급 돌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돌봄과 학습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준비에도 첫 온라인 개학을 맞는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의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 이후로 잦은 접속 오류를 보였던 EBS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 수업 사이트가 정상 작동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의 학습 관리 어려움, 학습 효과 저하 등의 우려가 여전해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오늘 세월호 6주기 "그날을 기억하세요"

카페 자람서 제주 추모 행사
사우스카니발 스튜디오서 공연

세월호 6주기를 기리는 행사가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4·16재단은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 전국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역 추모행사는 16일 오후 7시 교육문화카페 자람(고산동길 5길)에서 진행된다. '기억모임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를 주제로 추모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레이블 최소 우주 소속 뮤지션들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16분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최소우주)에서 '봄꽃'이란 라이브 공연을 한다. 공연이 펼쳐지는 곳은 제주 밴드 사우스카니발의 스튜디오로 이 곳에서 공연이 생중계된다.

공연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조동희가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발표한 추모곡 '작은 리본'과 2주기에 낸 '너의 가방', tvN 드라마 '시그널'에 나온 '행복한 사람' 등을 부른다. 사우스카니발은 다음달 29일 발매될 EP(미니음반) 수록곡을 공연하고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는 영상으로 '섬집아기' 기타 연주를 들려준다. 신인 뮤지션 서로도 영상으로 공연에 참여한다.

4·16재단은 "4월 16일 오후 4시16분이 되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더 이상 고인과 유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가 되기 위해 지난 6년을 기억하며 진실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6일 밤부터 제주 강한 비바람 예고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16일 밤부터 17일 사이 제주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6일 오후부터 평균 초속 8~13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15일 전망했다. 17일에는 강도가 더 강해져 해안가를 중심으로 평균 초속 10~16m,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또 17일에는 동서방향의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지형의 영향을 더 받는 제주도 산지와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과 돌풍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 천막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미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해달라"면서 "해상에서도 물결이 2.0~4.0m 높이로 높게 일어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주형 모델 개발 추진

제주시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주형 모델을 수립한다.

제주시는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재활 중심에서 자립 생활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이달말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재가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자립지원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 선도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제주지역 선도사업이 전국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윤형기자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말씀 인쇄

명함
8,000원 부터
코팅/무코팅
500매 단면

스티커
13,000원 부터
코팅/무코팅
9cm x 5.5cm
1000매

전단
120,000원 부터
A4 4,000매 단면
16절 8,000매 단면

포스터 / 팜플렛 / 카달로그 / 빌지 / 서식 / 봉투 / NCR지 / 현수막 등

구인
함께 일 할
편집디자이너
구합니다

제주시 정든로3길 52 전화/ 064.702.9990~1 팩스/ 064.726.9992 메일/ msp9991@daum.net